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8 . 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1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동양 예술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길상사 시간여행	14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②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19	답하기 곤란한 질문
아름다운 마무리	22	11월 결연 대상자 - 최용중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24	최귀동 할아버지
꽃 피는 산골	28	숨 쉬는 토방(土房)
따뜻한 이야기	32	나는 누구인가?
세계 일주 시작이 반	34	이집트 카이로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7	식탁에 앉아 바라보는 뒷마당 풍경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황윤하 「길상사의 가을」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285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동양 예술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달관적 세속 초월에 의한 진선미 구현-

글·법 정(法頂)

1

연제가 무슨 학위 논문의 제목 같지요? 물론 주관하는 쪽에서 준 것인데 이런 거창한 연제를 떠나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릭 시걸의 <닥터스>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은 읽어보셨는지요?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모양이군요. 읽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닥터스>하고 <소설 동의보감>은 의료행위를 주제로 한 소설이면서도 아주 대조적인 작품입니다. <닥터스>는 하버드 의대 출

신의 의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얘기들인데 아주 비정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서로가 밟고 올라서려 하고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류나 신뢰도 없이 냉혹하고 비정한 시기와 암투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은 의료의 기능 못지않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격과 인품을 중요시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데에도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질을 첫째로 꼽습니다.

우리가 이 두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서양 의학에서는 기(技)와 술(術) 같은 기능을 중요시하는 데 반해서, 동양 의학에서는 의사의 기능뿐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 다시 말하면 도(道)의 경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술의 세계에 있어서도 서양에서는 작품을 중요시하지만, 동양에서는 작품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까지도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단적으로 서양은 어떻고 동양은 어떻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한 예술인 이런 소설을 통해 보더라도, 서양에서는 기능적인 것, 기술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동양에서는 기능과 인격의 일치, 전인적인 도의 경지를 구경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도(茶道)나 서도(書道)나 검도(劍道)나 하는 훈련도 이를 뒷받칩니다.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특성 아래서 문화를 창조하고 형성해 왔습니다.

2

산에서 살다 보면 누구의 말이나 이론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스스로 문득문득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실감

합니다. 우리들 각 개인은 그 생명체에서 나누어진 한 지체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느낄 때, 그 우주가 나 자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안정되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열린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와 개체의 상관관계를 투철히 인식한다면, 개인의 작업이 어떤 수단이나 아니라 우주의 성스러운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하면 내 자신이 아주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충만한 삶이 되고, 이 삶이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나에게 커다란 사명감이 부여됩니다. 이때 우주적인 영감이 움트게 됩니다. 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삶이 충만할 때 아름다운 영혼이 꽃피어

납니다. 일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삶의 충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는 일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좋아서 해야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해서 안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삶의 향기이고 충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는 재미와 흥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입선하기 위해서,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야심입니다. 야심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이 따릅니다. 흥미는 사람을 창조적으로 일깨우지만, 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글씨 쓰는 이가 있는데, 그는 해마다 입선도 하고 특선도 하더니 작년에는 이것도 저 것도 안 되었습니다. 잔뜩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꾸짖어 준 일이 있습

니다.

“당신이 입선을 하기 위해서나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글씨를 쓴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게 무슨 문제냐. 당신이 그 일을 통해서 흥미와 고마움과 기쁨과 삶의 향기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심사 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글씨를 쓰는 그 생각부터 버려라.”

나는 글씨를 쓸 줄도 모르고 그림 그릴 줄도 모릅니다. 가끔 기분이 내키면 편지 답장을 붓글씨로 쓸 때가 더러 있는데, 어떤 때는 글씨가 잘되고 어떤 때는 써놓은 글씨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 잡념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어른한테 쓸 때는 잘 써야지 하는 생각으로 쓰면 잘 안 됩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위적인 생각이 끼어들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기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3

사람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삶의 조건이 다르고 생활양식이 다르며 그릇이 각기 다릅니다. 불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저마다 익힌 업業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독창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은 부질 없는 짓입니다. 저마다 삶의 몫이 다른데 왜 남의 것과 비교합니까? 어째서 내 작품과 남의 작품을 비교합니까? 비교는 자신의 독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비교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기, 질투란 똥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남의 세계를 넘어다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시기, 질투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이 남을 시새웁니다.

자기 몫의 삶을 철저히 사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불교 경전에 ‘유희삼매遊戲三昧’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할 때 아무 사심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놀이에 무심히 몰입하고 열중하는 일입니다. 수도자들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거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유희삼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심無心의 경지, 즉 마음이 열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조각을 할 때 아무 사심 없이 그 일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순수하게 몰입하고 집중하기를, 마치 아이들이 사금파리를 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야 자신이 지닌 창조적

인 에너지가 그대로 꽃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소꿉장난에 열중한 아이들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놀이에서 재미를 누리고 있는데 어찌서 남의 놀이를 가지고 시새울 수 있겠습니까.

4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는 임제선사(9세기 당말)의 어록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창조성을 중요시한 내용입니다. 예술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창조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록 가운데 ‘무사시귀인無事是貴人 단막조작但莫造作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무사無事란 아무 일 없이 반동거리는 무사안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한 ‘무학無學도 배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많이 배웠어도 그

배움에 거리끼거나 얽매이지 않는 경지를, 즉 배움을 자랑삼거나 코에 걸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무사 또한 일에 열중하면서도 그 일의 노예가 되거나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귀한 사람, 즉 진정한 자유인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로지 조작하지 말라, 즉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작이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연하자면, 하는 일이 천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릇을 보면 하나같이 천연스럽습니다. 쓰임새와 형태에 무리가 없는 그릇들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이른바 예술작품에는 쓰임새를 무시한 부자연한 그릇들이 많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이나 조형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릇이 지녀야 할 본래의 기능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각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천연스럽지 못합니다. 이런 그릇을 보면 만든 사람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불의 예술이라고도 하는 것은 가마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변窯變이란 말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요변에 의해서 일그러진 그릇은 천연스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일그러뜨려 놓은 그릇에는 천연스러움도 아름다움도 없는 불품사나움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인위적인 조작造作이 있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멍니다.

무사나 평범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조작이고 부자연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순한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천진한 아이들이 무심히 그린 그림은 볼 만한데, 성인이 아이들 흉내를 낸 그림은 천연스

런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곧 그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글이 곧 그 사람이고, 글씨가 곧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했는지 눈이 있는 사람은 이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 어록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런 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도道란 무엇입니까?”

즉, 진리란 무엇이냐고 제자가 스승에게 묻자 스승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평상심이 도다.”

도란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데 있지 않고 일상적인 마음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대가 그 도에 이르려고 한다면 오히려 도를 등지게 될 것이다.”

“힘써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망상이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도에 이르게 되면 마치 하늘이 활짝 개인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일부러 이러쿵저러쿵 따질 일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천연스런 덕성이나 창조력이 나올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본래 우리 심성 가운데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왜 밖에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가장 많이 독송 되는 경전 중의 하나인 <금강경金剛經>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빛깔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대 마음을 내야 한다.”

그 어떤 명성이나 지위 혹은 유파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의 본심,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맑고 향기로운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교훈입니다.

5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빛깔이지요? 회색입니까? 회색이 아니지요. 먹물 빛입니다. 먹물 빛[水墨色]은 침묵의 세계입니다. 물론 빛깔은 있지만 텅 비어 있어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빛깔입니다. 더 세련된 표현을 쓰자면, 어떤 절제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스며 있는 빛깔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모든 빛깔을 죄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을 두고 걸쳐도 싫증이 나지 않는 그런 빛깔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스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먹물 옷이 탐탁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이 먹물 빛과 혈명한 옷을 아주 좋게 봅니다. 먹물 빛은 단순하면서도 사람 마

음을 차분하게 가리앉혀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본 화가의 글에서 읽은 것인데, 그는 젊은 날 파리에 유학 갔을 때 피카소를 찾아가 그 밑에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피카소의 첫마디가 “동양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서 그림 공부를 해봤자 기껏해야 아류밖에 되지 않는다. 동양에는 먹이 있지 않느냐. 그 먹을 가지고 당신 기량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라.”

이 말에 그는 큰 감명을 받아 귀국 후 먹으로 그림을 그려 대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먹[水墨色]이란 뭘니까. 가장 단순한 색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빛깔을 그 안에 머금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과 단조로운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단조로운 것은 무료한 것이지만, 단순한 것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 줍니다.

우리 옛 가구들을 보십시오. 사방

탁자가 뒤틀린 문갑이 뒤틀린 혹은 잔탁이 뒤틀린 얼마나 단순하고 질박하고 편해 보입니까.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해 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뭇결의 흐름을 잘 살려서 자연의 숨결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형상으로도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 자신이 질박하고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품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요새는 돈버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대량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싹둑싹둑 잘라 자연의 흐름도, 편안함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가치밖에 없는 죽은 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을 들어가면서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도시건 시골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용인 지역에 골프장 만든다고 잔뜩

파헤쳐 놓은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찍었는데 얼마나 황량하고 볼품사납습니까. 일부 계층이 즐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참히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운 분당이나 일산 등 신도시가 녹지공간도 없는 삭막한 시멘트 박스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울 줄을 모릅니다. 여백餘白의 미美가 아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생략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본질적인 것만으로 집약된 모습, 이것이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다른 상태, 이것이 공空의 세계이고 적寂의 세계이며, 또한 침묵의 세계입니다. 좋은 글이나 글씨, 혹은 그림의 배후에는 반드시 침묵이 스며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오면서 우

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주는 예술품들은 하나같이 거기 공空과 적寂이 배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시회도 없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으며, 잘 보이려고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무심삼매無心三昧의 경지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호당 얼마다 하는 그런 짓 안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이나보다도 누가 그린 호당 얼마로 통하는 세태입니다. 그림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호당 얼마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상업주의에 병든 그런 사이버 예술가가 되지 마십시오.

6

예술 행위와 우리들의 삶이 이질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순간순간의 내 삶 자체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붓을 들건 망치를 들건 내 삶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

름다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발견입니다. 발견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각가가 돌에서 아름다움을 캐내듯이 사랑에서 아름다움은 발견됩니다.

사랑스런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또한 사랑스런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맑고 투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름답다는 그 관념과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고 안주하거나 묻히게 되면 궁극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술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에 있습니다. 이 자유 안에 아름다움과 평온이 깃들여 있습니다. 얽히고 매인 데 없이 자유로워야 삶이 향기롭게 그 향기 속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야 거기에서 아름답고 향기

로운 예술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거리낌이 없을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이다음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으로 살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열려있는 세상을 받아들여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예술가로서 현재 당신의 삶이 아름다움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거듭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시로 물으십시오.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안에서 꽃피어납니다. 향기를 머금고 은은히 꽃피어납니다.

이 글은 한국 미술계의 거장 월전 장우성 선생이 설립한 재단법인 월전미술관에서 발간하던 '한벽문중' 제2호(1993년)에 수록된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②

글 • 홍정근

우리 곁에서 새소리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딱딱하고 메마를까? 불자가 아닌 이들이 길상사를 찾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가까운 도심에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숲과 물이 있고, 꽃과 새가 있는 사찰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나마 머리를 식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상사는 참으로 괜찮은 절이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8년 초부터 길상사 개원 후 대원각 본체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헐어낸 자리를 비롯하여 경내 이곳저곳에 소나무 동산과 원추리, 할미꽃, 수선화, 매발톱꽃, 대나무 등 우리 꽃을 심는

‘도심 속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을 6년간 진행한 바 있고, 이후에는 몇몇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야생화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해왔었다.

오늘날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한 일회용 쓰레기 문제와 생태계 파괴는 수행공간인 우리 사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찰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실용성이 담겨 있는 사찰의 전통조경이 훼손되어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한국 사찰은 건축 지향적으로 대웅전 마당에 화려한 정원보다는 정갈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부처

님의 가르침을 숭배하면서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중요시 여겨왔다. 그런데 현대식 도심 사찰의 경우 법당 앞에 인공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거나 계절 따라 화분을 배치하거나 화단을 만들어 점점 높이고 넓혀서 법당을 가리는 경우가 있다. 보통 대웅전 앞마당은 나무 그늘이 없고, 햇볕이 강해 꽃을 심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야외 행사 시 야단법석으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는 사찰조경을 바탕으로 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불교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한다.

최근 길상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생태계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야생고양이의 개체 수가 늘어나 길상사 경내에 뛰어다니던 다람쥐와 청설모가 사라지고, 새들도 공격받는 상황에 이르

고 있다. 이에 신도들이 함께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길상사 생태계를 복원하였으면 한다.

길상사 주변에 여러 나라 대사관저나 고급저택이 즐비한 것만 봐도 그리하겠지만, 도심에서 길상사가 있는 곳만큼 가람의 위치가 좋은 곳이 또 있을까? 동틀 녘 설법전 난간 뜰에서 서울 시가지 풍경을 바라보는 그 멋진 선과 비할 바가 없을 것 같다. 지난 호에 이어 길상사 가람에 대해 다시 풀어 보고자 한다.

설법전(說法殿)

설법전은 부처님 법(法)을 설하는 공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다. 길상사에서는 일요 법회, 불교대학, 불교 입문 강좌 및 템플스테이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공간과 더불어 음악회와 강연회 등 각종 실내 행사가 설법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원각 시절에는 대연회장으로 사용된 공간이었는데, 1999년 8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봉안하고, 불상 뒤쪽에는 탱화 대신 십대제자를 병풍 형태로 모셨다가,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활용 등을 위해 2008년 5월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쳐 석가모니불 뒤쪽으로 천불(千佛)을 원형으로 조성하였다.

천불(千佛)은 대승불교의 다불 사상을 나타낸 것으로 과거 장엄겁천불, 현재 현겁천불, 미래 성수겁천불이라 부른다. 우주가 생겨났다 공(空)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겁(劫)이라 하는데, 현재의 겁(劫)은 현겁(賢劫)이라 한다. 천불, 만불이 현현하는 법당은 현겁천불의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재현한 곳으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중생은 3배만 하여도 부처님은 3000배를 받으시니 3000배를 쉽게 하는 일거양득이 있다.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거나 부아가 치밀어 오를



때 속에서 천불(千佛)이 난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바라밀로 마음속의 불(火)을 불(佛)로 바꾸어 중생들을 보살피셨듯, 내 마음속에 천불(千佛)이 날 때 화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 내가 곧 현겁 천불(千佛)의 한 부처님이 되지 않을까!

천불전 탱화의 아래쪽은 연태상으로 천불 부처님이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불상을 모신 곳이 연꽃 밭이고, 위쪽은 상상의 꽃인 보상화 당초로 주위를 돌렸다. 당초문이란 여러 가지 덩굴풀이 비피어 뻗어 나가는 모양의 무

늬를 말한다.

석가모니불의 천장은 구심점을 연 꽃으로 하여 조화롭게 형상화하였다. 주위를 금강저와 금륜(金輪)으로 돌렸는데, 그림을 바꿀 때는 전통을 기초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약간의 변화를 줬다고 한다. 아래쪽 연꽃과 위쪽 연꽃 탱화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바탕은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채색했다. 초록색, 파란색 등은 석채(암석을 부수어 만든 물감)로 칠한 것이다. 동그라미 세 개는 삼보를 의미한다.

천불은 스리랑카에서 제작한 불상으로 하얀 부처님이 주는 단조로움과 깔끔함이 청정함을 나타내는 듯하다. 주존인 석가모니불은 2007년 5월과 2016년 6월 개금불사를 한 바 있다.

지장전(地藏殿)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에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시립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 열반 후 미륵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보살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한다. 길상사 지장보살은 왼손에 보주를 들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있으며, 손에 석장을 지닌 모습인데, 전북 고창군 선운사의 암자 도솔암의 지장보살상을 모델로 삼았다. 길상사 지장전은 다른 절의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느끼는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장전을 조성할 때 어린이 법회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상 뒤로 돌아가면 영구위폐실이 있는데, 금 바탕에 연록색이 어우러지는 연꽃으로 구성된 아미타부처님 세계가 표현되어 있으며 주야로 끊임없이 염불 소리가 울려 나와 모든 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왼쪽에서 있는 승려의상이 도명존자이다. 설화에 나타나는

답하기 곤란한 질문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도명존자는 중국 양주에 있는 개원사의 승려로서 우연히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지장보살의 협사가 되었다고 하며, 지장보살과 관련되는 곳에는 빠짐 없이 등장한다. 지장보살의 오른쪽에는 무독귀왕이 서 있다. 귀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문관 또는 왕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없애준다고 한다.

지장전 탱화는 「지장시왕탱화」로 흥바탕에 금니로 깔끔하게 조성하였으면 하는 법정 스님의 의견에 따라 불모(佛母) 김의식 선생이 고려 불화를 참조하여 조성하였다.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가운데 모시고 왼쪽에 도명존자와 우측에 무독귀왕이 시립하고 시왕, 판관, 동자, 사자, 장군, 아방, 녹사 등이 있다. 법천과 제석천의 얼굴이 하얀 것은 경전에 백면(하얀 얼굴)이라 표현하기 때문이다.

지장전 부지는 대원각 시절 조그마

한 벽돌 건물이 있던 공간으로, 1995년 6월 대원각을 시주받아 절 이름을 대법사(大法寺)로 먼저 등록하여,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창건 준비와 창건 100일 기도, 강연했던 소법당이었다. 2002년 기존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으로 지장전 신축 불사에 뜻을 두고, 2004년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5월 8일 낙성식을 가졌다. 당시 법정 스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세월의 비바람에 깎이고 썩지만, 우리는 세월의 비바람에 허물어지지 않을 지장전을 각자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며 “우리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들 자신이 곧 현존하는 이 시대의 지장보살이다”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

지장전은 영가 49재를 의미하는 뜻으로 49평으로 조성하였고, 석가모니불은 1층 도서관(현 다라니다원)에 모셨고, 지하에는 스님과 대중들의 공양처인 선열당(禪悅堂)으로 조성하였다. (다음 호 계속)

공감 대화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아야 내 느낌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알아차림은 다른 느낌과 다른 바람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찾아낸 느낌과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것이 공감 대화입니다. 나를 알아차리는 훈련이 익숙하게 되면, 상대의 느낌과 바람을 짐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상대를 짐작하기는 어렵겠지요?

공감 대화의 기본 법칙 중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판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주관이 뚜렷하다고 다시 판단합니다. 비교도 판단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하는 경우 더 낫기를 바라시지요? 그렇다면 비교를 당하면서 낫지 않다는 판단까지 받으면 기분이 더 나쁠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부정적인 면이 발달하도록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각각을 인정하고, 위아래로 나누지 않는 사회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입니다. 아이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줄 알면서 비교를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답을 들으며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것을 보는 재미를 느끼기도 하겠지요.

만약 당신이 오누이를 둔 아빠이고, 큰아이가 초등학교생인데 어느 날 아래와 같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즘 당신은 둘째인 딸에게 더 눈길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적어보세요.

초등학교생 아들 : 아빠, 내가 더 좋아요? 동생이 더 좋아요?

오누이의 아빠 : _____

둘째인 딸이 더 좋다고 말한다면 첫째 아들은 속상하겠죠? 아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되는 '내가 더 좋아'라고 해주면 되는 것일까요?

이때 공감 대화에서는 솔직한 느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럽다 혹은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래와 같이 공감 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생 아들 : 아빠, 내가 더 좋

아? 동생이 더 좋아?

오누이의 아빠 : 어... 그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운데... 무슨 답을 해야 할지 참 곤란하다.

초등학교생 아들 : 빨리 대답해 봐요.
오누이의 아빠 : 아빠의 답이 빨리 듣고 싶구나?

초등학교생 아들 : 네!
오누이의 아빠 :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니?

초등학교생 아들 : 그냥요... 알고 싶어서요.

오누이의 아빠 : 아, 그냥 알고 싶었구나. (손가락을 모두 펼치며) 이 손가락 보이니?

초등학교생 아들 : 네.
오누이의 아빠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 알아?

초등학교생 아들 : 네, 들어봤어요.
오누이의 아빠 : 그 속담은 부모는 모든 자식을 다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란다. 아빠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과 같은 비교는 안

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초등학교생 아들 : 알겠어요, 아빠. 난 아빠가 동생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헤헤헤.

오누이의 아빠 : 그랬구나.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구나?

초등학교생 아들 : 네... 동생이 해당라는 것은 다 해주잖아요!

오누이의 아빠 : 아, 그렇게 보였구나. 사람들은 때로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아빠는 가족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한다는 비교는 가족끼리는 안 하고 싶어. 네 생각은 어떠니?

초등학교생 아들 :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엄마 아빠 모두 좋아해요.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는 비폭력 대화 책의 머리말에, '비폭력은 우리 안에 잠재한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성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해, 감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가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
공덕주 길상화(吉祥華)
보살 기재 안내
11월 14일(음.10월 7일)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주상보시를 한
길상화 보살님의 기재가
11월 14일(수) 오전 9시 50분부터
극락전에서 봉행되오니,
송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월 결연 대상자 - 최용중

키 167cm에 몸무게 38kg...

건강에 위협이 느껴지는 이 신체 사이즈의 주인공은 올해 75세 최용중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멀어진 후 빚을 갚으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25년간 따로 살아 연락조차 되지 않지만 자식들이 있어서 수급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일한 생활비는 총 30만 원으로 노인수당 20만 원과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모아준 10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이 중 23만 원을 쪽방촌 월세로 내고 나면 어르신 손에 남는 돈은 7만 원 남짓, 1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르신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치아가 모두 빠져서 유동식 이외에는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주방도 없는 1평 남짓한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어 조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 마비로 왼쪽 발과 오른쪽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어렵게 걸음을 옮길 수 있어서 멀리 떨어진 복지관이나 노인센터에서 지원하는 점식식사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난겨울, 홀로 길을 나섰다가 넘어진 뒤로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주거 환경의 열악함에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버티는 일뿐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족들에겐 미

안한 마음뿐이죠.

지난 삶에 대한 질문에 어르신은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는 사업 실패로 보살피지 못한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어르신은 을지로에서 도기 상사를 운영했지만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모든 재산은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자금을 모았고 재기에 성공해서 가족을 잘 돌보겠다는 꿈에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2002년 제법 목돈이 모였을 때 수입육 유통에 뛰어들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무렵 동업자가 물품을 살 대금을 들고 사라져 버려 하루아침에 다시 빚쟁이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이 산산조각 나고 그 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와서 왼쪽 발과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자비의니눔을 실천해주세요.

어르신께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월 7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 진료를 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36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홀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께서 기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귀동 할아버지

글 • 곽영미

‘꽃동네’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동네이기에 꽃동네라고 부를까요? 혹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은 아닐까요?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오갈 데 없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양원이지요. 사람들은 ‘꽃동네’하면 오웅진 신부님을 먼저 떠올린답니다. 하지만 오웅진 신부님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오웅진 신부님이 꽃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꽃동네 사람들이 모두 천사라고 부르는 최귀동 할아버지입니다. 꽃동네 입구에는 최귀동 할아버지의 동상과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인이었기에 결인들을 사랑했고, 가난했기에 가난한 자들의 아픔에 동참했고,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아온 최귀동 베드로 할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를 도와줄 만한 처지가 못 된다고 합니다. 입버릇처럼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훌륭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아픔을 알기에 그들의 절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최귀동 할아버지처럼요!

최귀동 할아버지는 1901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랐지만, 젊은 시절 일제의 징용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끝없는 노동과 모진 고문으로 마음의 병을 얻고 몸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향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오갈 데 없던 할아버지는 결인들이 모여 사는 무극천 다리 밑으로 들어가 결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결인들과 어울려 살며 힘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결인들을 위해 밥을 얻으러 다녔지요. 매일 집집마다 남은 밥을 구걸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다른 결인들이 먹고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웠답니다.

“얘들아, 바보 할아버지 지나간다. 저지 지나간다.”

아이들이 짓궂게 장난을 쳐도 할아

버지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이들이 노는 곳에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모난 돌맹이를 모아 다른 곳에 갖다 버리곤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나 옷가지를 주면 절대 받지 않았어요. 과일을 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양했지요.

“아니에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남은 밥이면 충분해요. 과일은 아이들 주세요.”

할아버지는 동냥을 하러 다니며 열려 있는 대문을 달아 주고, 빨래가 떨어져 있으면 다시 곱게 널어 주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거지가 아닌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다리를 저렇게 절면서 어딜 가는 걸까?’

무극리 성당에 새로 온 오웅진 신부님은 어느 날 최귀동 할아버지의 모습에 빠져 그를 뒤따라가 보았어요. 할아버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성당 뒷

산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움막을 훑쳐보던 신부님은 무척 놀랐답니다. 그곳은 걸인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얻어 온 밥을 걸인들에게 나눠 주고 있었지요. 장님, 절름발이, 아픈 노인 등 열여덟 명이나 되는 걸인들이 최귀동 할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동상으로 부어터진 발을 종이와 새끼줄로 칭칭 감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냥을 다녔던 거예요.

오웅진 신부님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노인은 나보다 건강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남을 돕고 있다. 나는 지금껏 뭘 한 것인가? 나는 건강하고 신부라는 직책도 있는데, 왜 남을 위해 한 일이 없는 것일까!’

할아버지를 통해 마음을 다잡은 신부님은 날이 밝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1,300원으로 시멘트를 사서 벽돌을 찍어냈어요. 움막

에 사는 걸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지라고 부르는 최귀동 할아버지랍니다. 보잘것없는 금왕읍이 최귀동 할아버지가 계셔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의 삶에 우리가 기쁨을 같이한다면 머지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귀동이 할아버지를 본받으러 이 고장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 같이 집을 지읍시다.”

오웅진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마음을 모아 걸인들을 위한 ‘사랑의 집을 짓자고’ 말했어요. 그 후 사랑이 가득한 그 집에 최귀동 할아버지와 열여덟 명의 걸인들이 들어가 살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꽃동네의 시작입니다.

최귀동 할아버지는 얼마 후 ‘한국 카톨릭 대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종교가 있진 않건, 인류를 위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되었지만 최귀동 할아버지가 뽑힌 거예요.

오웅진 신부님이 상금을 받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돈으로 뭐 하실래요?”

할아버지는 선뜻 상금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지어 줘야지 다른 거 할 게 있나? 죽을 곳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시게.”

최귀동 할아버지는 상금으로 노인 요양원 ‘임종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곳이에요. 최귀동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모두 하늘의 것이야.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내 눈을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주라고.”

마지막 유언대로 할아버지의 눈은

어느 젊은이에게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의 눈을 통해 다시 세상을 보고 있겠지요!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배가 고파서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배고픔에 괴로워하다가 누군가 먹을 것을 주면 자기 배를 채우기에 정신이 팔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걸인들이 받을 줄만 알고 스스로 일을 하거나 남을 도울 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최귀동 할아버지의 나눔과 오웅진 신부님의 노력으로 꽃동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들은 가진 것은 없지만 죽은 후이라도 눈이나 신장을 기증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나눔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거지랍니다.

숨 쉬는 토방(土房)

글 • 김기철

갓 태어난 아기의 숨결 소리를 듣고 숨 쉬는 아기라든가 코를 땅바닥에 박고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보고 ‘숨 쉬는 강아지라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숨 쉬는 개미라든지 지렁이를 말한다면 고개를 가우뚱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나무 등이나 바윗덩이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꼼짝없이 터무니 없는 궤변으로 취급당할 것이 뻔하다. 하다못해 미풍에 흔들리는 들꽃을 바라보고 귀여운 요정의 숨결 같다고 감탄을 하는 것쯤이야 사춘기 소녀의 애교 있는 시정(詩情)쯤으로 보아줄 수도 있을 것이나 동물도 식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 한 군데 도가 텃든

지 한참 모자라는 허튼소리로 몰아붙여도 할 말이 없겠다.

그러나 나는 ‘숨 쉬는 토방(土房)’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술 더 떠서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말라붙은 진흙 벽이나 서까래가, 장작불에 구워 있는 구들장이나 천장 위에 올려 있는 짚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에 “역지폐를 쓰고 있다”고 한다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각오는 되어 있다. 다만 현대 문명의 그 철통같은 완벽성 앞에서 미개의 상징인 양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토담 벽 방 한 칸을 꾸려놓고 제법 의미를 달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궁색한 변이 될지는 모르겠다.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이런 토방을

짓고 싶었다. 기껏해야 두 평정도 되는 불 때는 흙방 하나를 만드는 데 뭐가 그리 대단한 계획이라고 몇 해씩 소원을 담고 있었냐고 코웃음을 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즘처럼 전 문화되어 있는 시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모든 재료를 마련해서 직접 지었다는 사실과 남들은 그보다 몇십 배 더 좋은 옛집을 헐어버리고 살기 편하게 넓고 번듯한 현대 주택을 기세 좋게 올리는 판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산간벽지의 가난한 사람의 단칸 오막살이만도 못한 것을 옹크려 놓고 흐뭇해한다는 것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진흙 벽돌을 찍고 자연석 구들장을 구했다. 서까래 역시 소나무 꺾질을 까 말렸고 천장은 지난 늦가을 베어두었던 억새풀을 찢넝쿨로 가지런히 엮어 서까래 위에 깔았다. 그 위에 외폐기를 깔고 진흙을 개어

덮었다. 그런 다음 억새풀 헝클어진 것을 깔고 이엉을 이었다. 이제 지붕은 초가가 된 셈이다. 그다음 역시 진흙을 쳐서 모래와 섞어 벽과 방바닥을 발랐다. 실은 벽과 바닥에 진흙물 맥질을 해서 토굴 속 같은 분위기를 원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품위가 떨어질 것 같아 한지를 사다 바닥과 벽을 발랐고 천장은 억새 줄기의 그 자연 그대로의 모みを 살렸다. 쓰다 보니 몇 줄 넘기지도 못하고 거 것이 드러나는데…… 한지와 못과 현 집에서 나온 지게문, 이 세 가지는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거기다 방에 깔 따지 리 석 장은 고향에 부탁해서 구해냈던 것이니 결국 완전 자급자족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문지방은 무릎 높이쯤 되고 뒤창을 턱걸이할 만큼 내었다. 문지방 앞에는 수더분한 댕돌을 놓았고 뜰에 올라서는 데에 또 하나의 큼직한 댕돌을 놓았다. 넓지 않은 뜰 앞은 싸리울은 못 돼 도 잡목으로 둘러쳐 시원하게 바람

이 새어 들어오게 했다.

나는 일 년에 한두 차례씩 고향을 찾는다. 그곳은 비교적 옛것이 그대로 남아 우리 것의 보존이라기보다는 가난의 유물인 양 초라한 몰골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기울어진 사랑방은 얼마나 아늑한 공간인지 일단 드높은 문지방을 타고 넘어 들어가면 엄마 품에 안긴 기분이 든다. 마치 모체 속에서의 편안함처럼 깊이 잠을 이룰 수 있고 눈을 뜬 다음에 가벼운 몸으로 기지개를 켤 수 있다. 그 방에서는 옛날이야기가 꽃을 피웠고 질화로의 군밤 냄새가 구수했으며 닳지 않은 인정이 골방 속의 흙냄새만큼이나 가득 고여 있었다. 그 좁디좁은 흙방은 단순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원초적인 삶의 본질을 빨아들이게 해주었다. 비록 창호지 한 겹을 사이에 둔 외부와의 단절이지만 나 하나만의 세계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이다. 그렇다고 외부와 딱 막힌 답답한 공간이 아니라 창호지를 통해, 벽을 통해, 천장을 통해, 심지어는 방고래를 통해 외부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 방은 살아 있는 우리의 몸처럼 전체가 숨을 쉬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의 견고성이나 각종 현대 건축자재의 완벽성은 살아 숨 쉬는 집이 아니라 딱 막힌 죽은 공간으로 우리를 질식시키기에 알맞다. 창문만 닫으면 완전무결하게 외부와 차단되는 그 공간은 아무리 넓고 쾌적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죽은 공기가 잡혀 있는 것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드넓은 실내일망정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토방(土房)은 그렇지 않다. 비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람벽에 이마를 맞대고 앉아 있어도 생동하는 공기가 코를 타고 들어온다. 그러기에 도 닦는 분들의 면벽 삼 년

이고 몇 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거기에는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할 것이고 그 벽을 통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볼 것이며 깊은 숲속의 향취나 자욱한 정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도 여기서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성찰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역할로 나타나리라 믿는다.

방 안에는 단 두 가지만 들여놓았다. 문명의 이기라는 군더더기 물건은 애초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그 한 가지는 토방 짓기 전부터 만들어 났던 잣나무 통판 탁상이다. 그것을 윗목에 가로 놓고 그 한쪽 위에는 백자 연잎 그릇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 기름 종지를 놓았다. 숨으로 심지를 꼬아 불을 땡기니 맑

고 잔잔한 불꽃이 백자 연잎에 반사되어 장삼 자락인 양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 법정 스님의 방 안에서 인도의 명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기름등잔의 불꽃이 가녀린 울동으로 하늘 거릴 때 그윽한 감흥으로 아련한 꿈속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부신 전등 불에 길들여진 우리의 눈은 또 다른 체험을 통해 시각 아닌 그 무엇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토방 안은 밝지 않고 고요해서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다. 연잎그릇 속의 아기 숨결 같은 불꽃은 토방 전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과 우주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영혼의 소리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더 한층 신비할 따름이다.

김기철 · 자연에 대한 관심이 깊어 40대 중반 교직을 떠나 흙과 벗하는 삶을 선택한 그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보원요(寶元寮)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사람과 자연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바라보는 그의 이야기가 담긴 <꽃피는 산골>이 최근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글은 <꽃피는 산골>에 수록된 글이다.

나는 누구인가?

해가 슬슬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던 공원 관리인은 낮을 잃은 듯 힘없이 앉아 있는 청년이 조금 수상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요?”
젊은이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관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요? 어디서 왔어요?”
젊은이는 여전히 힘없이 답했습니

다.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인은 조금 강경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 갈 데 없어요?”

젊은이는 역시 알 수 없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인은 엉뚱한 대답만 하는 젊은이가 더욱 수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관리인의 미심쩍은 표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

이 받았던 질문에 골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는 했지만, 공원 관리인이 대수롭지 않게 던진 이 질문 내용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도 중대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젊은이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였습니다. 사실 방향이 다르기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하찮은 말 몇 마디에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법입니다.

이유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대다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중대한 의미와 필요가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특별할지도 모르는 당신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아끼고 잘 살피도록 합시다.

* 출처 : 따뜻한 하루

이집트 카이로

글 • 강인철

참으로 먼 곳 북아프리카의 관문 이집트 카이로다. 이곳의 더위는 서울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 나일강이 있어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숨이 턱 걸리고도 남을 일이다. 거대 석상, 화려 극치의 파라오 부조, 탑문과 열주 그리고 진귀함으로 가득할 고고학 박물관 등 상상만으로 설렘이 마구 밀려온다. 배낭을 다시 추스르고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Gizeh) 지구로 먼저 향했다. 시내에서 불과 15km 정도 가까워서 천만다행이었다. 사막의 더위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교과서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피라미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언뜻 보기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사막 가운데에서의 거리는

측정 불가다. 그중 가장 크고 대표적인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2.5톤짜리 돌 230만 개를 20년 동안 10만여 명이 교대로 쌓았다는데 아무리 손꼽아 계산을 해 봐도 숫자의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도무지 가늠이 서질 않는다.

밑면 한쪽의 길이가 230m에 높이가 137m요 4면의 방향이 똑 떨어지는 동서남북에 3각추와 별자리의 해석까지 더하면 이는 단순한 왕의 무덤을 넘어 그림자로 보는 해시계요 달력이며 천문대 역할까지도 족히 해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지하의 쿠프왕 현실은 나일강 물을 끌어들이며 섬처럼 만들어 놓았다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피라미드 내부 구조와 미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도 자료를 읽어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반인반수의 지킴이 스피נק스는 상상보다 많이 훼손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70m에 이르는 사자의 몸체에 20m나 높이 솟은 사람의 얼굴만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상巨像'답게 늠름했다. 그날도 쉽 없는 발굴인지 계속된 복원 작업인지 그곳은 건설 공사 현장처럼 어수선하기만 했다. 차라리 발굴되기 전처럼 사하라의 모래 속에 묻힌 채 편히 잠들어 있던 '옛날이 그리운 스피נק스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자 서성이는 발걸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수에즈 운하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온종일 달려 도착한 수에즈는 홍해에 맞닿은 항구로 운하의 시발점이다. 그곳에서 자중해의 포트사이트까지 400리



수로水路를 사람이 뚫다는 게 꿈만 같은 현장이다.

유럽과 인도의 뱃길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했던 시절, 지중해와 홍해를 바로 연결해 동서양을 좀 더 가깝게 다녀 보고 싶은 생각은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 프랑스로이 14세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이었다고 한다. 드디어 1859년 이집트와 프랑스가 합작으로 운하 공사를 시작은 했으나 이집트는 국가 재정이 빈약하여 영국에 지분을 팔아넘겼고 우여곡절 끝에 10년 후 공사는 끝이 났다.

그러나 1956년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자국 소유로 되찾을 때까지 긴긴 세월 이집트는

식탁에 앉아 바라보는 뒷마당 풍경

글 • 권오분

바라만 보는 처지였으니 외국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국책사업은 한 나라의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이므로 재삼 심사숙고할 중대사임을 절절히 깨닫게 한 현상이었다.

“...지금은 100년 전보다 10배나 빠르게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데 어떤가. 80일 동안, 즉 1,920시간 안에 세계를 일주하는 조건으로 2만 파운드를 걸겠네...” 1873년에 발표된 쥘 베른의 소설 <80일 간의 세계 일주>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주인공 포그는 2만 파운드를 걸고 영국을 출발, 프랑스~수에즈 운하~인도~홍콩~태평양~미대륙을 횡단해 런던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성공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작품이었다.

중1 때 너무 재미있어 열 번은 읽

었지 싶은 책으로 “나도 커서 세계 일주를 꼭 해 볼 거야.” 그런 다짐도 했었다.

이야기 중 제일 신기했던 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목이었다. 그때 그곳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었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 꿈에 그리던 수에즈 운하를 돌아보며 목표했던 여행 포인트 하나를 더 짝은 셈이라 기뻐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선박이 북극해를 통과해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데 수에즈로 도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곧 제2의 수에즈 운하를 또 뚫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자꾸 좁아지는 세상, 꼭 좋기만 한 걸까.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 가을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자 라이브 인 USA> 『이름이 뭐길래』 등이 있다.

1년 사계절 중에 가을만큼 바쁜 철이 또 있을까요. 쪼끄만 우리 밭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서리받이 고추도 따야 하고 비타민이 브로콜리보다 몇 배나 더 많다는 고춧잎도 서리를 맞으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따서 데쳐 말려야 합니다. 이 고춧잎은 김장 때 무에 단맛이 들면 무말랭이를 준비했다가 함께 버무려 둡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돌도 없는 무공해 다이어트 밀반찬이 되니 미룰 수 없지요. 고춧잎은 말리지 않고 데친 것을 그대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녹여서 행구어 주세요. 이것을 초고추장에 무치면 비빔밥에도 좋고 도시락 반찬으로 두고두고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어서 여간 유용한 게 아니니까요.

옛 어른들은 성분 분석이나 실험을 한 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도 가을 갈무리를 잘했는지, 가을이 되면 조상들의 생활 지혜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더위가 가시고 찬 이슬이 내릴 때 쬐이면 호박도 고추도 가지도 모두 새 가지와 새잎을 달고 꽃을 피워서 열매들을 열심히 맺는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영글어서 성숙과가 되기에는 가을이 너무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데다 서리도 내리기 때문에 가을 채소는 부지런히 갈무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여 가꾼 농산물이 못 쓰게 되어서 아깝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늦가을에는 자기 밭이 아
니어도 '서리밭'이라는 이름으로 밭
이 없는 가난한 이들도 겨울 양식 준
비를 할 수 있어서 저절로 아름다운
나눔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
런 연유로 가을은 농촌의 인심이 농
산물만큼이나 풍요로워지는 때입니
다. 가을별은 아무것도 말리지 않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지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아
서인지 여름엔 길쭉길쭉하게 잘 생
겼던 고추가 꼬부라지고, 작아지고,
벌레 먹고, 썩어버렸습니다. 성한 것
이 별로 없는데도 시중에서 사는 것
보다 정겹고 안심이 되니 벌레 먹은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벌
레 구멍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다
져서 된장에 버무려 두었습니다. 한
순갈씩 더 넣고 두부를 몇 조각 썰
어 넣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된장찌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 고
추 하나도 버리지 않게 됩니다.

남편이 우겨서 호박 두 덩이를 봄
날에 심었습니다. 물 한번 안 주었
는데도 호박 넝쿨이 온 집안에 뻗었
어요. 신기하고 고맙고 대견스러운
데, 마디마다 주먹만 한 호박이 달
려서 가을 들어 몇 개나 따 먹었지
요. 반들반들하게 달려 있는 가지는
꼬부라진 것 몇 개만 화초처럼 보기
로 하고, 나머지는 열십자로 갈라서
빨랫줄에 걸어 두었습니다. 벌레 구
멍투성이긴 하지만 양수리에서 주워
온 밤과 도토리 한 줌도 뒷마당을 풍
성한 가을 잔치판으로 만들어 주었
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뒷마당의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도 나도 걸
핏하면 어린 시절 부모님 슬하에 있
을 때 보낸 가을 음식이나 풍경을 이
야기합니다. 전에는 모든 자연 현상
에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길 할 때마다 남편도 별수 없이 나
이가 들었음을 실감하지요. 긴 가을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아
서 꽃봉오리를 터트리는 국화들이
빨간 고추와 잘 어우러져서 곱고 대
견스러웠습니다. 가을에 국화가 없
었다면 그래도 가을 느낌을 가졌을
까요? 전혀 꽃 노릇을 할 수 없을 것
같던 여름날의 국화 포기에서 꽃망
울이 살찌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고
통에서 희망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생깁니다. 여름 내내 잡초처럼 뒤엉
킨 풀들을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면
서 모두 뽑아 버리려고 하다가 쓸알
만큼 작은 꽃망울이 있는 것을 발견
했을 때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설렘이 올라옵니다.

꽃집에서는 일찌감치 국화 화분
을 팔고 있었지만 뒷마당에서는 이
제야 군데군데 꽃잎을 벌리고 있으
니 열흘쯤 있으면, 그리고 서리가 내
리면 국화의 자태가 꽃나라 여왕 같
은 기품을 지니게 되겠지요.

빨랫줄에는 보라색 가지가 걸리

고, 채반에서는 연둛빛 애호박이 등
근달처럼 썰려 마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 고구마 줄기, 찢 고구마
를 햇볕에 널어 말렸습니다. 양수리
에 사는 친구가 꺾어 준 감나무 가지
에는 작은 감이 매달린 채 홍시가 되
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돈이 없어도 뿌듯하고 밥
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 같아
서 마음이 푸근하기만 했답니다. 몸
과 마음이 함께 바빠지는 철이지만
되도록 마음을 느긋하게 갖자고 생
각을 비웠습니다. 온 세상이 끝이 나
는 것처럼 세계의 경제가 어찌고저
찌고하는 뉴스는 아예 외면하고 살
기로 했지요.

꽃밭에 없는 국화를 꽃집에서 화
분으로 보게 되면 아낌없이 사들고
들어오니 이래저래 국화 나라가 따
로 없습니다. 한 끼 외식하는 돈이
면 국화 화분 두 개를 살 수 있으니
밖에서 외식을 해야 할 때 나는 곧



잘 굽고 꽃을 삽니다. 배가 약간 고프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 보이고 한 끼를 참으면 여러 날 여러 사람이 예쁜 꽃을 보고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어서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아지지요.

서리를 맞으면 속절없이 얼어서 버려지게 될 것들을 찌고 말합니다. 그 것들을 갈무리했다가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만들어 가족이 먹고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으니 가을걷이 갈 무리처럼 훌륭한 경제활동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늦가을에 야채를 우리처럼 골고루 말려서 갈무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버려지는 것들을 웰빙 먹거리로

변화시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은 아무리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멜라민 파동을 비롯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먹거리가 더욱 불안하지만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쯤 재래시장에 들러서 말릴 것들을 골고루 사다가 베란다나 옥상에 말려 두면 두고두고 건강식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한 대형마트만 갈 것이 아닙니다. 열흘에 한 번이라도 재래시장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함을 쫓는 현대인들의 기호 때문에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걱정이 됩니다. 재래시장도 살리고 건강 먹거리도 장만하고 햇볕에 널어 말리는 정서도 누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만큼은 일거양득의 가을 갈무리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 <공제> 등이 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19년 탁상달력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 해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탁상달력을 11월 중순경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 말일까지 후원이 없고 11월 ~ 12월 말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19년 1월 중순에 배송해드립니다.)

매년 달력 발송 시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거나, 달력 고리나 스프링 파손, 길상사 달력과 중복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부터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탁상용'으로 제작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모임에 후원하시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신 회원님의 경우 달력 발송이 누락될 수 있으니,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중앙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기에 1부씩만 증정하오니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 창건 기념 법회(12월 16일(일)), 동지기도(12월 22일(토))에 배포하고, 이후에는 길상사 중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달력은 이가온 작가의 작품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가온 작가 약력 :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 전공
- 초대 • 개인전 15회 / 부스전 및 국내외 아트페어 8회
- 수상전 도교국제공모전 우수상(동경미술관) / 환경미술대전 우수상(단원미술관)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국립 현대미술관)외 다수
- 현재 한국미술협회원
- 작품 소장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레드스쿨, 엠버서더호텔, 개인소장 다수
- 작품 협찬 : MBC 골든타임, MBC 개과천선, SBS 닥터이방인, MBC 압구정백야



2018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인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우리는 모두 존엄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근본 사상은 지혜와 자비, 생명 존중과 평등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4째 일요일에 '인권'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1월 25일(넷째 일) / 사시예불 마친 후 / 설법전

◆ 강의 주제 : 가정 인권에 대해서

11월 25일(넷째 일) 초청 강사 / 가정 인권에 대해서

모천석 / 인권교육활동가

- (현)인권교육활동가

-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철도안전공학과) 겸임교수

- 갈등조정 수석컨설턴트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 참여

10월 13일(토)에 성북동 진입로에서 진행된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참여했습니다. 알차고 즐거운 바자회를 만들기 위해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서는 봉사자들과 함께 먹거리와 녹색 장터 물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먹거리에는 반찬 나눔 봉사팀에서 엄마의 정성과 손맛이 가득 담긴 연잎밥과 김치, 각종 젓갈 및 주전부리를 준비해주셨고 리폼 봉사팀과 사무국이 함께 친환경 화장품 및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2018년도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봉사자와 회원 및 신도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맑고 향기로운 나눔과 이웃 사랑 실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사자 숲기행 진행

10월 15일(월)에 전남 불일암과 송광사로 봉사자 숲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암자 기행은 지난 1년간 자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들과 함께 법정 스님의 출가 본찰인 송광사와 무소유를 집필하셨던 불일암을 참배함으로써 법정 스님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첫 마음을 되새겨 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반찬 나눔, 서울노인복지센터, 진인요양원, 생태사찰 가꾸기, 소식지 발송, 리폼, 진영각 관리팀, 전화말벗 등 다양한 봉사팀에서 참여했습니다. 불일암으로 올라가는 대나무숲 길

에서 법정 스님의 청정한 발자취를 떠올리고, 현재 불일암 임주로 계신 덕조 스님과 명상, 차담 시간을 통해 과거에 법정 스님께서 어떤 마음과 행보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셨는지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송광사 참배를 진행하여 맑고 향기롭게 정신과 참 뜻을 굳건히 다져보았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함을 전하며, 중앙 사무국은 봉사자들과 함께 맑고 향기롭게 실천 덕목을 깊이 성찰하여 마음, 세상, 자연을 가꾸는 일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리폼활동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 전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뜻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청바지는 의류 폐기물이 아닌 예코백, 파우치, 앞치마, 매트 등으로 업사이클링되고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녹색나눔장터,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주변 이웃들의 후원금으로 뜻 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 보호를 위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심화시키기 위해 청바지뿐만 아니라 폐현수막, 우산 등의 물품도 함께 리폼할 계획이니 앞으로 맑고 향기롭게 자연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많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

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을 중단합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속하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금/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8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만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7, 24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국민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정기 재정 후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 |
|-------------------------------------------------------------------------------------|----------------------------------------------------------------------------------|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서로배우터 '맑고 향기로운 일곱 빛깔 아카데미 강좌' 안내
- 11월 9일(금) 저녁 7시 / 허윤미(한국웃음다이어트협회 교육이사)
- * '100세 건강시대'로 가는 웃음 건강법'
- 12월 14일(금) 저녁 7시 / MC달래 (전문 사회자, 푸른방송 케이블TV 리포터)
- *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들도 행복하다.'
-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화'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유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유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화원을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로운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와 주변환경 및 시설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관음재일

- 일시 : 11월 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1월 3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1월 8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1월 10일(토) 오후 8시 00분 ~ 11월 11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금강경 천일기도 10회차 회향

- 11월 5일(월) 오후 2시
- 극락전

수능 합동천도재

- 11월 1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 11월 14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2019년도 입시기도 회향

- 11월 1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입재

- 일시 : 11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11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1월 2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관음재일	11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1월 3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법회	11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1월 10일	저녁 8시 ~ 새벽 3시 50분	극락전
수능 합동천도재	11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길상화보살 기일	11월 1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회향	11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 입재	11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1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25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입시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함께해요!

일 시 : 11월 29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나눔 대상자 : 홀로어르신, 장애인 500여 가구에 15kg씩 나눔

- ◆ 내 용 : 11월 29일(목) 9시 30분부터 배춧속 양념 넣기, 포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전 7시에 오셔서 배추 하차 지원해주실 남자 봉사자 일손이 필요합니다.)
- ◆ 참여 대상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개인 봉사자
-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 활동 혜택 : 점심 제공, 봉사활동인증서 발급(필요시)
- ◆ 봉사 참여를 미리 접수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기업체, 단체 봉사 참여는 받지 않습니다.
- ◆ 당일 김장 관계로 길상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02.741-4696 / www.clean94.or.kr

김장 후원 동참 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맑고 향기롭게)